



“신뢰프로세스의 진화, 통일한국을 위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억제, 관여, 신뢰의 복합 추진

하영선 편



- 편저자_ 하영선
- 출판사_(재) 동아시아연구원
- 발행일_ 2014년 5월 27일
- 가 격_ 8,000원
- ISBN 978-89-92395-77-9 93340
-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번지 (을지로4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한반도와 주변국의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새 제안을 함께 읽고 고민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 서문 중

남북한 관계

의 오랜 악순환은 역사적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1970년대 초의 7·4남북공동성명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깨졌으며, 1990년대 초 남북한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빛 바랜 문서가 되어 잊혀졌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도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한에 모두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기회의 창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연설과 이에 대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 악순환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복합을 위한 공진(共進)”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외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 논의를 21세기 복합변환의 시대에 맞도록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은 억제, 관여, 신뢰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신뢰프로세스 2.0, 비핵안보와 경제를 동시 건설하는 북한의 병진로선 2.0, 주변국들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구상 2.0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새로운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그 첫 결실로서 지난 해 10월 회의에서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초고를 정부당국자들과 국내의 대표적 보수와 진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오늘날 악순환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다시는 퇴보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통일한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정책 제안을 묶어 출판한 것이다.

억제, 관여, 신뢰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신뢰프로세스
비핵안보와 경제를 동시 건설하는 북한의 병진로선
주변국들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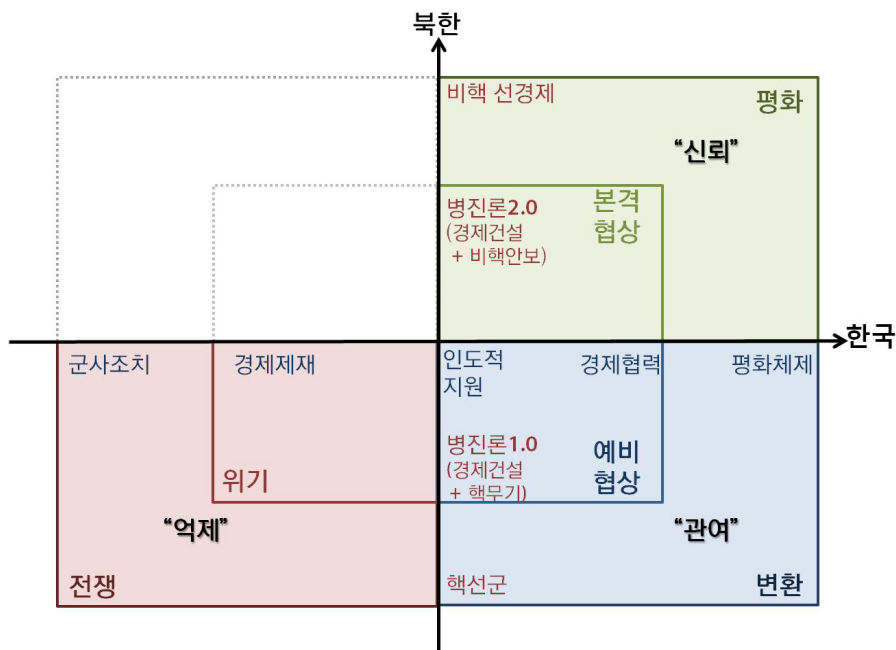
2.0

평화의 길을 닦는 신대북정책 제안

위기와 협상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남북관계가 본격적 협상을 거쳐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신대북정책은 아래 그림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3사분면 억제 국면에서 1사분면 신뢰국면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건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억제, 관여, 신뢰국면을 포함한 복합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억제-관여-신뢰 국면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다. 단계적 접근은 과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또 다시 퇴행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국면에서 해야 하는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점차 전쟁과 갈등 상태에서 평화와 신뢰의 상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접근하는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한반도 전쟁과 평화



신대북정책 4원칙

1. [억제] 북한의 핵무장 건설과 지역 군사위기 조성을 능동적으로 억제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억지방어태세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미국의 확대핵억지체제(extended deterrence), 전시작전통제권의 효율적 상호 운용,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포함시킨 복합조치를 마련한다.

2. [북한 변화] 북한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 2.0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비확산체제의 엄격한 제재들을 고려할 때 핵무력 건설과 본격적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메시지만 북한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체제 붕괴의 위협이라고 받아들여질 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논의를 포함한 미래 비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다.
3. [국제협력] 북한의 병진노선 2.0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공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안보와 경제번영의 병진론과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공진시켜야 한다.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적 각축이 치열한 동아시아에서 단순한 평화협력구상은 실현 불가능하다.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편협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이해를 공유하는 역외국가들과 지역 국제기구들을 품는 동시에, 안보, 경제, 에너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이슈들을 중층적으로 엮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글로벌 수준의 평화협력 구상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는, 남과 북, 한반도 안팎, 역내와 전세계의 복합적 공진화를 추구해야 한다.
4. [신뢰] 국면별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신뢰프로세스는 낮은 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이에 북한이 화답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시도하는 단계적 신뢰구축이 기본이다. 그러나 특정 시기와 영역에 제한된 방식의 신뢰구축 방안의 마련만으로는 신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실현하기 어렵다.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은 여러 사분면에 걸쳐 위기의 3사분면에서는 불신 감축, 변환의 4사분면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그리고 협상의 1사분면에서는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가 포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문

1장 총론

2장 외교

3장 안보 및 군사

4장 경제

- 부록
1. [EAI 논평 제32호] 하영선, “북한2014 미로찾기 : 신년사의해석학”
 2.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2014년 신년사 (2014년 1월 1일)
 3.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보고 (2013년 3월 31일)
 4. 박근혜대통령,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 (2013년 12월 30일)
 5.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문 (2013년 5월 9일)
 6.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공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 연설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2014년 3월 28일)

집필진 약력 —

(가나다 순)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관계 전공교수. 미국 남서침례대학(Southwest Baptist University)을 졸업하고, 보스턴칼리지(Boston College)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동북아 국제관계, 안보론, 외교사, 북한연구, 한미동맹 등이다. 최근 저술로는 “한미동맹의 재해석 : 동맹 이익과 비용”, “Cooperation and Conflict among the Cold War Allies,” “A Study on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the ROK and the US,” “The Pattern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5·18 광주 민주화항쟁과 미국의 대응”,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 : 포드행정부의 동맹정책 전환” 등이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과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국 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국회의장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 (사)북한경제포럼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최근 연구로는 《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공저), “7·7 선언과 남북한 공존의 가능성”, 《공진의 남북경협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공저),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공편) 등이 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한국외교사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어 왔다. 저서 및 편저로는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공진》,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시간의 통일이야기》, 《네트워크세계정치》, 《북한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현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1세기 평화학》, 《국제화와 세계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의 여러 전문가들이 EAI를 통해서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가교로서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